

은혜와 진리소식

2023년 7월 9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834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신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 신은희 -

저는 언니의 전도로 개척 당시의 은혜와진리교회에 출석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한동안은 교회에 가서 예배에 참석하고 구역모임에 참여할 때 교회생활의 경험이 없고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생소하고 어색하였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가면 왠지 마음이 편안하였고 예배와 모임에 빠지면 몸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교회에 다녔습니다. 영혼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도 현실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하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불안감이 사라지고 세상 어디에서, 그 무슨 일에서 경험할 수 없는 평안함이 마음속 가득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취업이 여의치 않고 따라서 여러모로 생활하기가 쉽지 않았을 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으로 어렵게 직장을 구하여 열심히 생활하였습니다. 주중예배에도 참석하여 목사님의 설교를 경청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로마서 10:17) 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기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나의 죄악을 사하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 찬송하였습니다.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지 일 년쯤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발에 갑자기 습진이 생기더니 점점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연고만 바르다가 나중에는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조차 치료가 되지 않고 어느 날부터는 아예 걸음을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이 얼마나 독한 지 위장병까지 앓았습니다.

급기야 민간요법 등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써봤지만 역시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습진이 점점 더 심해져서 두 발 전체를 붓대로 감은 채 생활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어렵게 얻은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습진균이 나중에는 손까지 번지고 부어 오른 손바닥이 너무 크게 변하여 주먹을 쥘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피부과 의사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한센 병 치료에 쓰는 독한 약을 쓰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내 마음이 너무 슬프고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손발에서 진물이 흘러 붓대를 감고 있어야 했는데, 수시로 너무 가렵고 아팠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기도하던 중에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서 재 가운데 앉아 기와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은 습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데 왜 이런 시련이 올까,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을 원망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삶에 대한 의욕이 없어질 즈음 수구역장님이던 언니가 같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고쳐 주시면 살고 아니면 그냥 죽어도 괜찮다는 각오로 복용하던 약봉지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언니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한지 채 하루가 지나지 않은 그날 저녁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토록 아프고 가려우며 진물이 나던 저의 손과 발에서 갑자기 수분이 짙 빠지면서 손발이 개운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 ‘혹시 내가 금식하느라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상황이 겹도 나고, 완전히 나을 때까지 금식하며 기도하겠다고 하나님께 떼를 쓰듯 약속드렸는데 언제까지 금식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고, ‘다시 아프면 어찌지?’하는 걱정도 하였습니다.

다음날 새벽 가벼워진 몸으로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혜를 베풀어서 저를 온전하게 고쳐 주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과연 오래 저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괴롭히던 질환이 언니와 함께 죽을 각오로 기도를 시작하지 단 하루만에 저의 온 몸에서 사라졌습니다. 정말 신기하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신유의 체험을 한 후 전보다 더 열심히 교회에 다니면서 주위 성도님들의 권유로 성가대 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목사님의 설교말씀에 더 큰 은혜와 감동을 받으며 신앙생활이 한층 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저의 적성에 맞는 직장에 들어가 보람된 일을 하며 사회생활도 즐겁게 하게 되었습니다.

성가대 봉사를 하면서 이런 신유의 은혜도 체험하였습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교회의 사명 중에 치유의 사명에 관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병약한 우리 성도들을 치료해 주신다니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났는데 눈에 충혈은 없지만 도저히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성가대 봉사를 하루 쉬까 하다가 가까운 약국에 들러 진통제를 먹고 눈에 안대를 한 채로 교회에 갔습니다.

함께 봉사하는 성가대원이 찬양할 때 너무 표시가 나니까 웬만하면 안대를 벗고 찬송하면 어떻겠냐고 하므로 안대를 벗고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 때 성가대석의 제 자리에서는 강단 중앙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이 가리워져 성가대석 앞 모니터로만 목사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유기도 시간에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병명을 일일이 말씀하며 병약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중에, 성가대원 중에 눈이 몹시 아픈 성도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치료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성가대원들은 일제히 저를 바라보면서 “아멘!”하고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성전을 나가는 제 눈에서 거짓말처럼 아무런 통증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때로는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결혼을 위해 기도하면서 장래에 장로님이 되어

교회를 섬길 그런 신실한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저의 이 기대와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한동안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임신인가 싶었는데 그만 계류유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술 후에도 자주 하혈을 하고 회복이 매우 더디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구역장 임명을 받고 처음 상반기에 열린 구역장 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세미나가 끝날 무렵, 당회장 목사님께서 신유기도를 해주시는 중에 유산하고 고통 중에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잉태하는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할렐루야!’하며 두 손을 번쩍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 그 많은 구역장님 중에 저 혼자 일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아,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고 확신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해 12월에 구역장 작정기도회가 있어서 아이를 갖기 위해 열심히 참석하여 기도했습니다. 그 때 합심기도 중에 마음에 다시 확신이 들며 무한히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부푼 기대와 소망으로 송구영신예배와 신년축복예배를 드린 후 1월 2일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선생님이 임신이라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구역장 세미나에서 당회장 목사님이 올해 안에 잉태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외에도 일일이 이 간증문에 다 담을 수 없는 크고 작은 많은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저와 저의 가정에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숨 쉬는 모든 순간 순간마다 저와 함께하시고 저희의 가정사에 함께하셔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시간이 지나면 때를 따라 도와주시며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감사드리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잘 자라서 회계법인에서 일하며 코로나 팬데믹 중에 예쁜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제가 일찍이 꿈꾸며 기도한 대로 오늘 남편은 장로로 그리고 저는 권사로 교회를 섬기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함께 지금 이 시간까지 20년이 훌쩍 넘게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나고 보니 제가 기도한 것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덤으로 제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좋은 것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 은혜와진리교회에 소속하여 당회장 조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설교를 들으며 성령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쁘고 행복한지를 알기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힘껏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사는 것이 저희 가족의 바램이고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함께하시고 도와주실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케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시편 103:1~5) 아멘!



구역공과 제1권

(제4과) 구원의 예시

- 본문 : 에베소서 2:1-10
- 요절 :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
- 찬송 : 405장(새찬송가 305장), 411장(새찬송가 563장)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절대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므로 죄 짓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인간을 그냥 모른 척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아담이 죄 지은 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얼굴을 피하여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보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셔서 그 길을 계획하고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보여주시는 구원 계획을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히신 가죽옷의 의미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 먹고 그들의 눈이 밝아지자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워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창 3:7). 그러나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는 시간이 조금 지나자 금방 말라버려 더 이상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죄를 온전히 가릴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롬 3:20).

아무리 선행을 쌓고 수양을 하고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에게 최초의 구원의 예시를 보여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 대신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신 것입니다(창 3:21).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기 위해 아무 죄도 없는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게 하고 그 가죽을 벗겨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피 흘림이 없는 즉 사함이 없느니라”(히 9:22)고 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짐승이 대신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가죽옷을 위해 희생된 짐승은 구약 시대 인간의 속죄를 위해 희생된 순한 희생 제물의 예표이며, 궁극적으로는 인간 구원을 위해 십자가 상에서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피 만이 단번에 온 인류의 죄를 영원히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서 지어 주신 가죽옷을 입고 부끄러움을 가리웠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옷 입을 때에만 죄를 완전히 가리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2.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 뱀에게 내린 저주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창 3:15). 이 말씀에서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뱀의 후손은 사단을 가리킵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잠시 해를 끼칠 것이나 마침내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으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심으로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성경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요일 3:8)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죄 짓고 마귀에게 속하여 괴로움을 당하는 인간을 자유케 하고 마귀의 꾀계를 멸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3. 속죄양으로 오신 예수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백여 년 전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사 53:6,7)라고 하였고,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 1:29)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담의 죄로 인해 온 인류가 죄인 되어 절망에 처한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류의 죄를 영원히 도말할 속죄양으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롬 5:19)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한 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고 멸망에 이르렀지만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시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아 의인되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을 무조건 용서해 주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독생자 예수님의 희생을 통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항상 감사하면서 우리는 이 귀한 은혜를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031-443-3731~2, 446-9184
- 수원 : 수원시팔달구 장다리로314번길3 T.031-225-3731, 234-3732
-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031-486-3731~2
-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02-502-3731
-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031-318-3731~2
- 광명 : 광명시 하안로 254(하안동) T.02-894-3731
-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청천동) T.032-507-3731~2
-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031-462-3731
-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다길 5 T.02-2632-3731
- 산본 :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031-395-8227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032-469-3742
-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032-652-3731~2

-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중산동) T.031-906-3731
-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031-497-3732
- 영통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031-205-3732
-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031-567-3731
-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031-422-9200
-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031-227-5992~3, 227-3739
-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031-985-3731~2
-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031-662-3731
-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031-684-3731
-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041-555-3731
-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063-225-3731
- 양주 :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031-863-3731
-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033-764-3735
-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02-459-3731
-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 (관동동) T.055-312-3731
-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031-337-0688
-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032-751-3731
-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동남로41번길30 T.042-471-3736
-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168 T.031-763-3720
- 남양 :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 (남양리) T.031-355-3729
-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053-522-3731
-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041-667-3731
-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롤로 55 (천천동) T.031-271-3731
-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031-8015-3731
-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041-353-3731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044-862-3732
-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063-239-1004
-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572 T.033-463-1312
-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 46-5 (황성동) T.054-772-7867
-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번길 21-18 T.041-534-3731~2
-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031-662-3731
-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2 (쌍계리) T.063-351-7518
-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055-752-6675
- 온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041-533-3731